

## 고고자료와 문헌으로 본 상기문국

전상학\*

###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맺음말     |
| 2. 운봉고원의 가야 고분       | 참고문헌       |
| 3. 문헌자료              | <Abstract> |
| 4. 고고자료와 문헌으로 본 상기문국 |            |

### 국문초록

문헌 속 기문의 지리적·공간적 범위와 백제와 신라, 반파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고, 고고자료와 비교·검토를 통해 기문은 남강 상류에 자리했던 가야 소국으로 보았다. 남강 상류의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경남 함양군과 산청군 일대에는 서로 긴밀한 교류관계를 바탕으로 동일한 문화권 및 생활권을 형성했던 가야 소국들이 있었다.

문헌 속 기문은 상·중·하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리적으로 상류에 있으면서 유곡리와 두락리·월산리·임리·청계리 등의 고분군을 비롯한 160여기의 중대형 고총이 분포하는 운봉고원을 상기문국으로 비정하였다.

‘신선의 땅’이라 불리우는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상기문국은 우륵의 가야금 12곡과 양직공도에도 그 이름이 등장한다. 상기문국이 자리한 운봉고원은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 마한 그리고 여러 가야세력이 부딪치기도 하고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주제어 : 가야, 기문, 상기문국, 백제, 신라, 반파, 운봉고원, 남강, 섬진강, 고총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책임연구원, E-mail: archaeology1@hanmail.net

## 1. 머리말

일제강점기 때 지명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야사 연구는 전북 동부지역을 대가야 영역에 속하였던 곳으로만 인식하고 가야 소국 기문국(己汶國)이 임실, 남원 등 섬진강유역으로 비정된 견해가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今西龍 1922; 김태식 1993). 그렇지만 섬진강유역에서는 가야 소국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방증해 주는 가야에 중대형 고총의 존재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남강 상류에 위치한 운봉고원에는 유곡리와 두락리·월산리·임리·청계리 등의 고분군과 160여기의 중대형 고총이 분포한다. 이들 고분군 중 일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최고의 위세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금동신발과 철제초두, 수대경, 계수호 등이 출토됨으로써 가야 소국인 기문국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기문은 양직공도(梁職貢圖)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 기록된 가야 소국으로 삼기문[상·중·하]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교적 넓은 지역을 아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남원 운봉고원 일원에서 조사된 가야 고분과 제철유적, 산성, 봉수 등 탁월한 고고학적 자료는 가야 정치체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간 연구 조사된 고고자료[고분]와 문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전라북도 동부지역인 남원 운봉고원 일원에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정치체[상기문국]의 실체에 다가서고자 한다.

## 2. 운봉고원의 가야 고분

### 1) 운봉고원

전라북도는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이 동부의 산악지대와 서부의 평야지대로 갈라놓는다. 백두대간의 영취산에서 주화산까지 서북쪽으로 뻗은 금남호남정맥의 산줄기가 북쪽의 금강과 남쪽의 섬진강유역으로 가르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에 운봉고원과 서쪽에 진안고원이 위치한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중앙부에 위치한 전북 동부지역은 지정학적인 이점을 잘 살려 선사시대부터 줄곧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더욱이 가야 소국들이 백제의 중앙과 서로 교류 및 교역하는데 대부분 이용해야 하는 간선교통로가 전북 동부지역을 통과하였다. 전북 동부지역을 무대로 치

열하게 전개된 백제와 가야, 신라의 역학관계는 대체로 철산지의 장악 및 간선교통로의 관할과 관련이 깊다. 그리하여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곽장근 2018).

운봉고원은 한반도의 물줄기를 동서로 가르는 백두대간 동쪽의 고원지대로 남강과 섬진강이 시작되는 곳이다. 동쪽으로는 팔랑치를 넘어 경남 함양으로 이어지고, 서쪽으로 여원치로 내려오면 남원으로 치재를 넘으면 임실과 장수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동서 문화 교류의 관문이었다. 삼국시대에는 백두대간의 서쪽인 남원시 일원은 백제의 고룡군(古龍郡)이, 동쪽인 운봉고원에는 신라의 모산현(母山縣)이 설치되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 한 후 운봉현으로 개칭되어 천령군[함양]의 속현이 되기도 하였으며, 고려 초에 다시 남원부로 이속되었다. 이렇듯 운봉과 함양은 현재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영·호남 또는 전북 남원·경남 함양으로 불리우나 선사시대부터 인문지리적 환경에 의해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예언서인 『정감록』에는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십승지지로 소개되었으며,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용은 “남도의 관방은 운봉이 으뜸이고 추풍령이 다음이다. 운봉을 잃으면 적이 호남을 차지할 것이고 추풍령을 잃으면 적이 호서를 차지할 것이며, 호남과 호서를 다 잃으면 경기가 쭈그러들 것이니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관문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산의 지적처럼 운봉고원은 영호남 최고의 요해처이자 관방이었다.



그림 1. 백두대간 정령치에서 바라본 운봉고원(남원시)

## 2) 운봉고원의 가야고분

백두대간의 동쪽에 자리한 운봉고원에는 가야고분군 32개소와 중대형 봉토분 160여기가 분포한다. 이 중 월산리고분군,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봉

토의 규모와 군집, 매장시설, 출토유물 등을 통해 중심고분군<sup>1)</sup>으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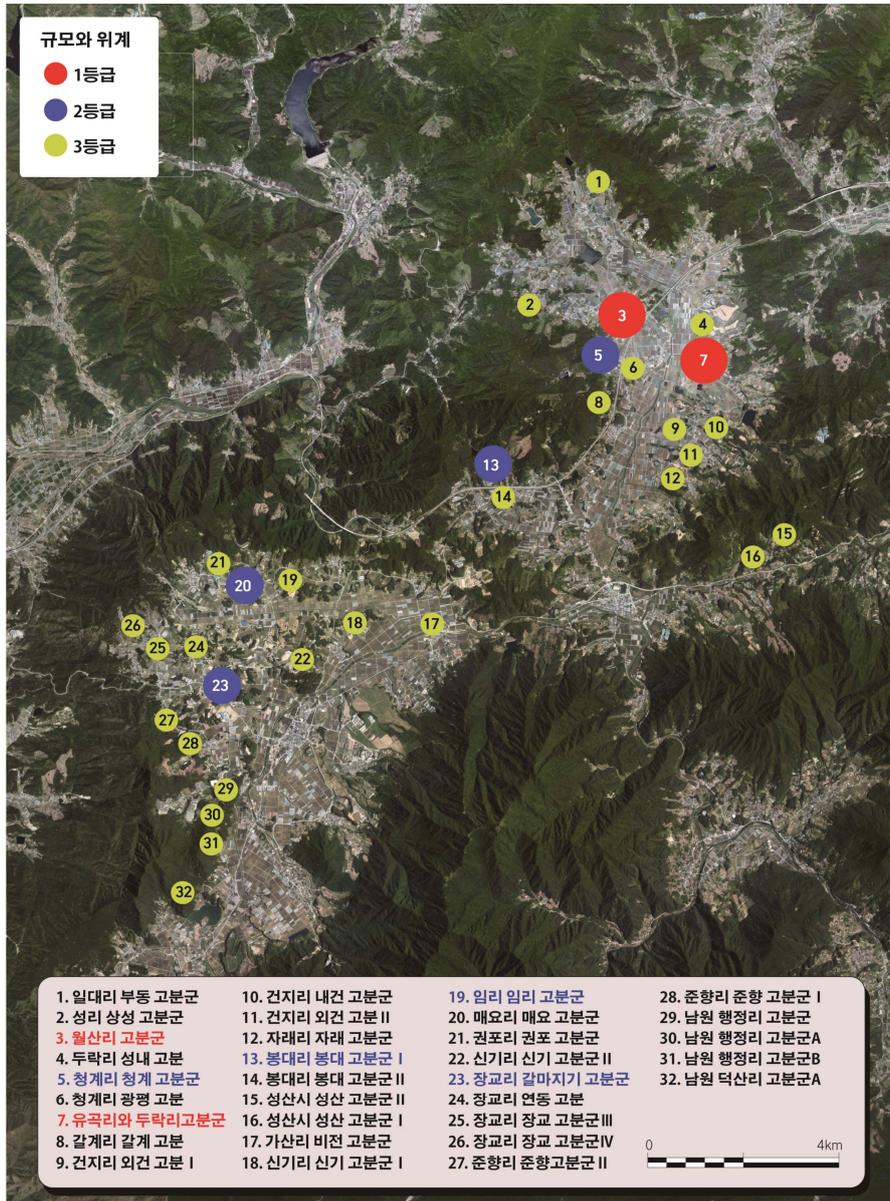


그림 2. 운봉고원 가야고분군 현황[kakao map]

1) 중심고분군이란 개념은 독자적인 정치체의 최고위계 지배자 집단들을 위해 정치체적 차원의 매장시설을 수행함으로써 조영된 고분군을 정의하기 위해 제안되었다(이성주 2007).

## (1) 건지리 고분군(윤덕향·곽장근 1991)

유적 내 고분은 서쪽 경사면의 가파른 지역을 제외한 구릉에 밀집 분포되어 있는데, 봉토는 대부분 훼손되었다. ‘가’지구에서 17기, ‘나’지구에서 5기, ‘다’지구에서 17기의 구덩식 돌덧널무덤(竪穴式 石槨墓)이 조사되었다. ‘가’와 ‘다’지구는 여러 개의 돌덧널(石槨)이 하나의 봉토에 자리하고 있으며, ‘나’지구는 하나의 봉토에 1기의 돌덧널이 자리한다. 고분은 생토면을 파내어 묘광을 마련한 다음 돌덧널을 축조하고, 그 위에는 여러 개의 천장석을 올렸다. 벽석은 바닥에 대형 판상석을 서로 잇대어 수직으로 세우고 그 위에 할석(割石)과 천석(川石)을 가지고 가로와 모로쌓기 방식을 혼용하여 곧게 쌓아 올렸다. 석곽의 바닥면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풍화암반층을 정연하게 다듬어 그대로 이용하였다.

## (2) 봉대 고분군(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유적은 2011년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고분군은 백두대간 시리봉에서 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봉대마을까지 길게 뻗어 내린 가지능선의 끝자락에 위치한다. 가야계 구덩식 돌덧널무덤 8기가 조사되었다. 돌덧널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을 띠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하게 축조하였다. 유물은 뚜껑달린긴목항아리(有蓋長頸壺), 굽다리접시(高杯), 귀달린항아리(兩耳附壺), 항아리(壺), 병(甁) 등의 토기류와 철낫, 철도끼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그림 3. 건지리고분군 ‘다’지구



그림 4. 봉대리 2호분 출토 토기류 모습

## (3) 월산리 고분군(전영래 1983, 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백두대간 산줄기에 자리한 시리봉에서 북동쪽으로 아영면 소재지까지 길게 뻗어 내린 동쪽 경사면의 말단부에 자리한다. 동쪽 경사면을 따라 동서방향으

로 분포된 10여 기의 고총 중 제일 위쪽에 있는 M1-A호분은 전면적인 발굴조사, M4호분은 수습조사의 성격을 띠고 정리조사만 이루어졌다. 봉토의 규모는 M1-A호분과 중복관계를 이루는 M2호분·M3호분을 제외하면, 동쪽 경사면의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올라가면서 점차 대형화되고, 제일 윗쪽에 위치한 M1-A호분이 최대 규모를 이룬다.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현지 제작 토기가 주종을 이루면서 고령양식(高靈樣式)과 소가야양식(小加耶樣式) 토기가 약간 섞여 있으며, 후자는 위세품인 고리자루큰칼(環頭大刀)을 비롯하여 말갖춤새(馬具類)와 철제무기와 갑옷, 목관에 사용된 관못과 꺾쇠 등도 출토되었다.

M5분의 매장주체부인 돌덧널은 최하단인 1단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묘광(墓坑)을 약간 굴광하고 2단 부터는 봉분의 성토층과 나란하게 축조하였는데, 돌덧널의 축조와 봉분의 축조가 병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장벽과 단벽은 크고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11~13단 정도로 쌓아 올렸는데 최하단에는 126cm내외의 강돌과 할석을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서 시상대(屍床臺)<sup>2)</sup>를 마련하였는데 약 1~2m 간격으로 바닥이 오목하게 ‘凹’자 상으로 함몰부가 확인된다. 이는 일정간격으로 목재를 놓고 그 위에 관을 안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널(木棺)의 흔적은 부식되어 전혀 남아 있지 않으나 M5호분의 경우 바닥 중앙부에 장방형의 형태로 꺾쇠가 일정하게 놓여 있어 목관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M5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청자계수호(靑磁鷄首壺)와 초두(鐵製廳斗)을 비롯하여 금제귀걸이(細環耳飾)·유리제목걸이(頸飾)와 같은 장신구류, 투구(冑)·목가리개(頸甲)·찰갑(札甲) 등의 갑옷과 기꽃이(蛇行狀鐵器)·발걸이(鏡子)·재갈(銜)·삼환령(三環鈴) 등의 마구류, 쇠손칼(鐵刀子)·쇠화살촉(鐵鏃)·쇠도끼(鐵斧)·쇠낫(鐵鎌) 등의 무구류, 꺾쇠(鐵釘), 원통모양그릇받침(筒形器臺)·바리모양그릇받침(鉢形器臺)·소형원통모양그릇받침(小形器臺)·뚜껑달린긴목항아리(有蓋長頸壺)·짧은목항아리(短頸壺), 굽다리손잡이발(臺附把手附碗), 뚜껑접시(蓋杯) 등 다양한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4)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전북대학교박물관 1989·2015, 군산대학교박물관 2012)

연비산에서 아영분지의 중심부까지 뻗어 내린 산줄기에 자리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남원시 아영면 두락리와 인월면 유곡리에 해당된다. 종래에 백제고분군으로 알려졌으나, 1989년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계 고총군으로 밝혀

2) 고분 내부의 바닥에 시체를 올려놓기 위해 마련한 시설

졌다. 산줄기의 정상부와 북쪽으로 돌출된 두 갈래의 지류, 남쪽 기슭에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40여기의 고총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이 고총군에서 4기의 구덩식 돌덧널무덤(竪穴式 石槨墓)과 1기의 굴식 돌방무덤(橫穴式 石室墳)이 조사되었다. 가야계 중대형 고총으로 밝혀진 두락리 1호분·2호분은 봉토의 중앙에 하나의 매장주체부만 마련된 단곽분으로 봉토의 가장자리에는 호석시설을 마련하지 않았다. 유물은 굴식 돌방무덤에서 쇠손칼, 꾸미개 등이 출토되었고, 구덩식 돌덧널무덤에서는 뚜껑달린긴목항아리(有蓋長頸壺)와 그릇받침(器臺), 기꽃이, 여러가지 말갓춤새 등이 출토되었다.



그림 5. 남원 월산리고분군

32호분은 고분군의 서쪽 구릉(해발 465.9m)과 동쪽 구릉(해발 457.7m)사이에 연결된 능선 상에 위치한다. 봉분은 상부가 경작으로 인해 상당부분 삭평되어 평탄화 되었으나 봉분외곽선을 연장하여 추정하면 봉분 높이가 3.2m가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시설은 주곽(主槨)과 부장곽(副葬槨)이 확인되었으며, 주변에 도랑(周溝)이 시설되었다. 이밖에도 봉분 서쪽 하단부에 중복되어 원삼국시대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바리모양그릇받침(鉢形器臺), 뚜껑달린 긴목항아리(有蓋長頸壺), 짧은목항아리(短頸壺), 뚜껑(蓋) 등의 토기류 40점과 청동거울[獸帶鏡], 백제계 금동신발, 여러 가지 말갖춤새, 철제무기류등 금속제품 약 110여점 이상이 출토되었다. 한편 주석곽의 남장벽 옆의 봉분 내에서 말뼈(하악골)가 출토되었다.



그림 6. 두락리 1호분



그림 7. 두락리 32호분

## (5) 임리 고분군(군산대학교박물관 2013)

남원시 운봉읍 임리마을 서북쪽에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해발 490m 내외의 산줄기에 자리하고 있는데, 능선의 정상부와 가지능선 상에 대략 30여 개의 봉토분이 분포되어 있다. 조사된 고분은 고분군의 북쪽 능선 최하단부에 자리한다. 고분의 축조는 풍화암반층을 정지한 후, 그 위에 적갈색사질점토를 깔아 터다짐을 하였다. 매장주체부는 다짐층과 풍화암반층을 파내어 마련하였으며, 봉토의 중앙에 주석곽과 북쪽에 석곽 2기를 배치하였다. 주석곽은 앞트기식 돌덧널무덤(橫口式 石槨墓)이며, 북쪽은 구덩식 돌덧널무덤(竪穴式 石槨墓)이다. 유물은 뚜껑달린 긴목항아리, 넓은입 긴목항아리, 항아리. 뚜껑접시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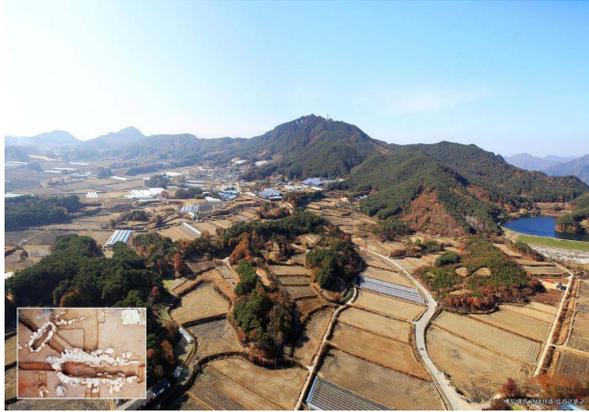


그림 8. 운봉고원 고남산과 임리고분군

## (6) 행정리 고분군(전북대학교박물관 1994)

백두대간 산줄기의 정상부에 솟은 수정봉에서 동쪽으로 뻗은 지류의 동쪽 경사면 말단부에 자리하고 있다. 구덩식 돌덧널무덤(竪穴式 石槨墓)은 등고선과 평행하게 장축방향을 두고 풍화암반층을 파내어 토광을 마련하였다. 벽석은 천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주로 가로쌓기 방식으로 곧게 쌓았으며, 그 위에는 장방형의 개석을 덮었다. 바닥시설은 유구가 심하게 훼손되어, 그 원상을 파악하지 못한 8호를 뺀 나머지는 모두 소형 할석을 전면에 깔았다.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를 비롯하여 곡옥과 구슬,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운봉고원에서 조사된 가야고분군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고분이며, 여기에서 출토된 광구호는 금강수계와 관련 깊은 백제토기이다(하승철 2014).

(7) 청계리 청계고분군(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9)

백두대간의 봉화산(해발 919m)에 가지능선인 시리봉(해발 777.8m)에서 북동쪽으로 길게 뻗은 지류가 중단부에서 두 갈래로 나뉘면서 하단부로 이어져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청계리 청계고분군은 남쪽 지류에 위치하며, 월산리고분군은 북쪽 지류 하단부에 자리한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약 31m, 너비 약 20m, 높이 5m로 호남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가야 무덤 가운데 가장 크다. 매장시설은 3기의 돌덧널이 확인되었으며, 2호 덧널이 중심 시설로 보여진다.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이중 수레바퀴 장식토기, 그릇받침, 굽다리접시 등의 아라가야계 토기와 중국 자기 등이 주목된다. 무덤의 축조기술과 다양한 외래계 유물을 통해 볼 때 무덤을 만든 시기는 5세기 전반에 해당되며, 피장자는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활발한 대외교류를 했던 인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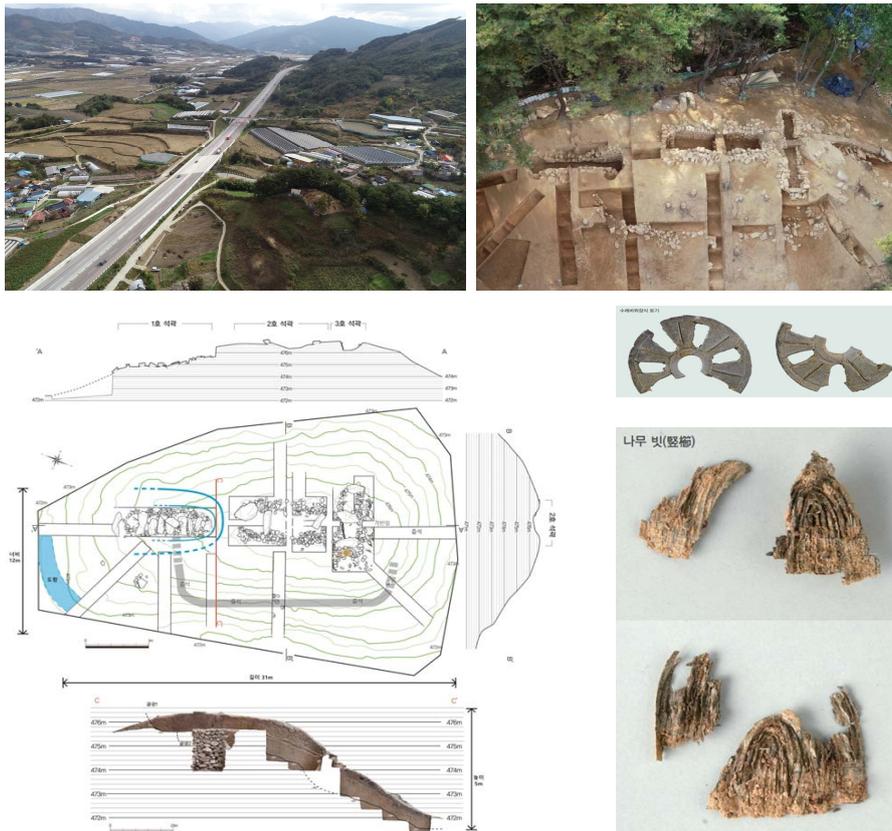


그림 9. 남원 청계리 고분군

이외에도 운봉고원에는 가야와 관련된 관방[산성:7개소, 봉수:5개소]유적과 철 생산과 관련된 제철유적 30여개소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들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3. 문헌자료

#### 1) 기문

문헌자료에 기록된 기문은 삼국시대 가야와 관련된 지명[지역] 또는 소국으로 알려져 왔으며, 그간의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동부지역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여기에서는 기문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종래 연구성과와 비교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기문의 위치비정은 경북 금릉군 개령으로 보는 견해(千寬宇 1991, 金鉉球 2000), 섬진강 중류지역과 섬진강 중류지역(金泰植 1993, 林永珍 1997, 연민수 1998, 이동희 2004, 김병남 2006, 김영심 2008, 박현숙 2008, 정재운 2008)에서 하류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보려는 주장(朴天秀 2006)으로 나뉜다. 그리고 기문을 同名異地로 보고 섬진강유역과 낙동강 중류유역으로 비정한 견해(백승옥 2007)도 있다.<sup>3)</sup> 1990년대 이후에는 경북 금릉군 개령의 주장이 거의 퇴색되었고, 지금은 대부분 섬진강유역으로 비정한 견해를 따른다. 가야 소국 기문이 섬진강유역에 존재한다는 주장은 일제강점기 지명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는데, 섬진강유역으로 기문을 비정한 견해(今西龍 1922)가 발표된 것이 거의 한 세기의 시간이 흘렀다<sup>4)</sup>.

사료-① 三國史記 32, 樂志1 加耶琴條<sup>5)</sup>

加耶琴 또한 중국악부의 箏을 본받아서 만들었다. 風俗通에 이르

3) 이를테면 『翰苑』의 基汶河를 섬진강유역으로, 『新撰姓氏錄』의 己汶을 낙동강 중류지역으로 비정하였다.

4) 곽장근, 2018, 『웅진기 백제 영토 개척과 지방 지배 2 - 동쪽을 중심으로-』, 『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배』 제13회 쟁점백제사 학술회의 발표요지문 p.72, 한성백제박물관.

5) 加耶琴 亦法中國樂部箏而爲之 風俗通曰 箏秦聲也 釋名曰 箏施絃高 箏箏然 并梁二州箏形如瑟……加耶琴雖與箏制度小異 而大概似之 羅古記云 加耶國嘉實王見唐之樂器而造之王以謂諸國方言各異聲音 豈可一哉 乃命樂師省熱縣人于勒造十二曲……于勒所製十二曲 一曰下加羅都 二曰上加羅都 三曰寶伎 四曰達已 五曰思勿 六曰勿慧 七曰下奇物 八曰師子伎 九曰居烈 十曰沙八兮 十一曰爾赦 十二曰上奇物 (三國史記 32, 樂志 加耶琴條)

기를 쟁은 秦의 소리라 한다. 釋名에는 쟁은 줄을 높이 매어 소리가 箏箏하며 并州·梁州의 두 주의 쟁의 모습은 瑟과 같다고 한다…… 가야금은 비록 쟁과 그 제도가 조금 다르지만 대개 비슷하다. 신라의 古記에 가야국 嘉實王이 당의 악기를 보고 가야금을 만들었다고 한다. 왕이 “여러 나라의 방언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니 어떻게 일정하게 할 것인가?”라고 말하고 이에 악사 省熱縣 사람 于勒에게 명하여 12곡을 짓게 하였다.……우륵이 지은 12곡은 一 下加羅都, 二 上加羅都, 三 寶伎, 四 達已, 五 思勿, 六 勿慧, 七 下奇物, 八 師子伎, 九 居烈, 十 沙八兮, 十一爾赦, 十二 上奇物이다.

사료 ①은 가야금과 우륵이 지은 12곡과 관련된 기록이다. 여기에서 12곡은 지명과 관련된 것으로 대가야와 대가야연맹에 소속된 소국(田中候明 1992)이나 대가야가 가야에 대해 하나의 권역으로 인식하는 천하관을 보여주는 것(주보돈 2006)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가야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더라도 대가야의 교역권에 포함되는 곳들까지도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형기 2020).

우륵 12곡에 지명과 관련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대가야를 중심으로 공간적인 범위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기문과 관련된 지명인 상기물(上奇物)과 하기물(下奇物)은 단편적인 고분자료와 음상사를 기준으로 삼진강 상류에 위치한 전북 임실과 순창 및 남원지역으로 비정(田中候明 1992; 김태식 2009)하고 있다.

종래 연구에서는 사료①에 기록된 상기물(上奇物)과 하기물(下奇物)은 삼국시대 가야 연맹체에 속하는 정치체(國)와 그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기문은 삼진강유역에 있다는 전제를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져왔다.

사료-② 『양직공도』 백제국사전<sup>6)</sup>

백제의 변방에 있는 叛波, 卓, 多羅, 前羅, 斯羅, 止迷, 麻連, 上巳文, 下枕羅 등의 소국들이 백제에 부용한다.

사료 ②는 6세기 전반 대 백제가 중국의 남조(梁)에 사신을 파견한 기록으로 백제 주변에 소국을 열거하고 있다. 열거된 소국들은 직접 견사하지는 못

6) 旁小國有 叛波 卓 多羅 前羅 斯羅 止迷 麻連 上巳文 下枕羅 等附之(梁職貢圖 百濟國使)

하고 백제 사신을 따라 견사(遣使)했던 나라(이용현 1999)로 백제의 세계관이 가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기문은 상기문(上己文)으로, 기문과 백제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사료-③ 『한원』 백제전<sup>7)</sup>

括地志에 말하기를 熊津河는 나라의 동쪽 경계로부터 나오고 서남쪽으로 흐르고 나라의 북쪽을 가로질러 흐르는 것이 백리이다. 또 서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강폭이 넓은 곳은 300보이다. 물이 지극히 맑다. 또 基汶河가 나라에 있는데, 원천은 그 나라에서 나온다. 원천이 그 나라의 남쪽 산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흘러서 큰 바다로 들어간다. 그 안의 水族은 中夏와 같다.

『翰苑』은 唐 고종 顯慶 5년(660) 張楚金(?~689)이 찬술하고 雍公觀가 注를 붙인 類書의 初寫本이다. 사료 ③의 기록은 기문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여기에서 熊津河(熊津河)는 금강으로 熊津·사비기 백제의 지리를 설명하고 있다. 기문하(基汶河)는 나라의 남쪽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이르는 강으로 종래 연구에서는 섬진강으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강은 덕유산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낙동강을 만나서 바다에 이르는 남강이 있다. 특히, 남강 상류지역의 운봉·산청·함양·생초·안의·서상 등지에는 분지가 형성되어 지방 중심지로 발달되었으며 가야와 관련된 문화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사료-④ 『신찬성씨록』 좌경황별하 길전연조<sup>8)</sup>

임나국이 상주하여 말하였다. “신국의 동북에 三巴汶[上巴汶·中巴汶·下巴汶]의 땅이 있는데 사방 삼 백리 정도 됩니다. 토지와 인민이 부유하고 풍요로우나 신라국과 다투어 피차 다스리지 못하고 전쟁만 서로 계속하여 백성이 살기에 어렵습니다. 신이 청컨대 장군을 보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한다면 곧 귀국의 부로 삼겠습니다.

7) 『翰苑』 蕃夷部 百濟條. “括地志曰‘ 熊津河出國東界 西南流經國北百里 又西流入海 廣濶(處)三百步 其水至清 又有基汶河在國 源出其國 源出其國南山 東南流入大海 其中水族與中夏同.”

8) 『新撰姓氏錄』, 左京皇別下. “吉田連 ~ 任那國 奏曰臣國東北有三巴汶地[上巴汶·中巴汶·下巴汶]地方三百里土地人民亦富饒與新羅國相爭 彼此不能攝治 兵丈相尋 民不聊生 臣請將軍令治此地卽爲貴國之部也.”

사료 ④는 기문의 위치와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으로 기문은 三巴汶 [上巴汶·中巴汶·下巴汶]으로 신라와 다투어 피차 다스리지 못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문은 3개의 소국(지역)으로 사방 삼백리에 가까운 넓은 범위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의 삼기문은 임나국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임나국을 고령 지역[대가야]으로 보고 기문의 위치를 낙동강 중류지역으로 보는 견해(백승욱 2007)가 있다<sup>9)</sup>.

사료-⑤ 『속일본후기』 승화 4년 6월조<sup>10)</sup>

吉田宿称의 시조인 鹽乘津은 대왜인이다. 후에 국명을 따라 삼기문의 땅에 가서 살았는데, 그 땅은 결국 백제에 예속되었다. 염승진의 팔세손인 달솔 吉大尙과 그 동생 少尙 등이 회토심이 있어서 서로 연이어 來朝하여 의술을 대대로 전하고 문예에도 능통하였다. 그 자손들이 奈良京 田村里에 거주하여 吉田連의 성을 받았다.

사료-⑤는 기문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으로 기문은 삼기문으로 백제에 예속된 땅이며, 사료 ④와 함께 기문은 3개의 소국(지역)으로 신라와 백제의 각축장으로 백제의 영역이 되었던 지역이어야 한다.

## 2) 기문과 주변 정세

일본서기 계체기에 기문과 관련된 기록[사료-⑥]은 6세기 전반 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문을 사이에 둔 백제와 반파 그리고 신라와 관련된 것이다.

사료-⑥ 일본서기 계체기 기문 관련 기사

일본서기 권17, 繼體紀 7년(513) 6월조<sup>11)</sup>

9) 사료④에 기록된 임나국은 어디를 지칭하는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0) 『續日本後紀』 권6 仁明天皇 承和4年(837) 6월 己未條. “右京人左京亮從五位上吉田宿禰書主越中介從五位下同姓高世等 賜姓與世朝臣 始祖鹽乘津 大倭人也 後順國命 往居三己汶地 其地遂隸百濟 鹽乘津八世孫 達率吉大尙 其弟少尙等 有懷土心 相尋來朝 世傳醫術 兼通文藝子孫家奈良京田村里 仍元賜姓吉田連”

11) 百濟遣姐彌文貴將軍 州利卽爾將軍 副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 委意斯移麻岐彌], 貢五經博士段楊爾 別奏云 伴跛國略奪臣國己汶之地 伏願 天恩判還本屬

백제가 저미문귀(姐彌文貴)장군과 주리즉이(州利卽爾)장군을 수적신압산[『백제본기』는 왜(委)의 의사이마기미(意斯移麻岐彌; 오시아마기미)라고 하였다.]에 딸려 보내어 오경박사(五經博士) 단양이(段楊爾)를 바쳤다. 그리고 따로 “반과국(伴跛國)이 신의 나라의 기문(己汶)이라는 땅을 약탈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바르게 판단하여 원래 속한 곳에 돌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일본서기 권17, 繼體紀 7년(513) 11월조<sup>12)</sup>

조정에서 백제의 저미문귀 장군, 사라(斯羅)의 문득지(汶得至), 안라(安羅)의 신이해(辛已奚) 및 분파위좌(賁巴委佐), 반과(伴跛)의 기전해(既殿奚)와 죽문지(竹汶至) 등을 불러 칙명을 알리고, 기문(己汶)과 대사(滯沙)를 백제국에 주었다.

같은 달, 반과국이 집지(戢支)를 보내어 진보를 바치고 기문의 땅을 청하였으나, 결국 돌려주지 않았다.

일본서기 권17, 繼體紀 8년(514) 3월조<sup>13)</sup>

반과가 자탄(子呑)과 대사(帶沙)에 성을 쌓아 만해(滿奚)에 연결하고, 봉후와 저각(邸閣)을 설치하여 일본에 대비하였다. 또한, 이열비(爾列比)와 마수비(麻須比)에 성을 쌓고 마차해(麻且奚)와 추봉(推封)과 연합하여, 군사와 병기를 모아 신라를 핍박하였다. 남녀를 포로로 삼고 마을을 노략질하니, 습격을 받은 곳은 살아남은 자가 드물었다. 포악하고 사치스러우며 사람을 괴롭히고 마구 학살하니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일본서기 권17, 繼體紀 9년(515) 2월조<sup>14)</sup>

백제 사자 문귀장군 등이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이에 칙을 내려

- 
- 12) 辛亥朔乙卯 於朝廷 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已奚及賁巴委佐 伴跛 既殿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 滯沙 賜百濟國 是月 伴跛國 遣戢支獻珍寶 乞己汶之地 而終不賜
- 13) 伴跛築城於子呑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復築城於爾列比麻須比 而緘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 以逼新羅 駟略子女 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 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
- 14) 百濟使者文貴將軍等請罷 仍勅 副物部連[闕名] 遣罷歸之[百濟本記云 物部至至連] 是月 到于沙都嶋 傳聞伴跛人 懷恨銜毒 恃強縱虐 故物部連 率舟師五百 直詣帶沙江 文貴將軍 自新羅去

물부련을 돌아가는 사신에 딸려 보냈다.

같은 달, 사도도(沙都嶋)에 이르러 반파의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강한 힘에 의지하여 잔혹한 짓을 일삼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물부련은 수군 5백 명을 이끌고 바로 대사강(帶沙江)으로 나아갔다. 문귀장군은 신라를 거쳐 백제로 들어갔다.

일본서기 권17, 繼體紀 10년(516) 5월조<sup>15)</sup>

백제가 전부목리불마갑배(前部木弼不麻甲背)를 보내어 기문에서 물부련을 맞이하여 위로하고, 백제로 인도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각자 의복과 무기와 천을 내어 나라에서 내린 물품에 더하여 조정에 쌓아놓았다. 위로하는 바가 간절하였으며, 평상시보다 상록(賞祿)이 많았다.

일본서기 권17, 繼體紀 10년(516) 9월조<sup>16)</sup>

백제가 주리즉차(州利即次) 장군을 물부련에게 딸려 보내어 기문의 땅을 준 것에 감사하였다. 그리고 따로 오경박사 한고안무(漢高安茂)를 바쳐 박사 단양이와 교체해 줄 것을 청하였다. 청하는 바에 따라 교체시켰다.

무인일에 백제는 작막고(灼莫古)장군과 일본의 사나노아비다(斯那奴阿比多)를 보내어 고구려의 사신 안정(安定) 등과 같이 내조하고 우호를 맺었다.

사료 ⑥은 6세기 전반 백제와 반파가 기문을 두고 전쟁을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기문을 중심으로 백제·신라·반파가 등장하며, 결국 기문과 함께 대사는 백제의 영역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기문은 백제·신라·반파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사료 ④와 같이 토지와 인민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삼국시대 이 지역을 차지하려는 여러 세력들의 상황이 보여진다. 기록 속의 반파는 종래 연구에서는 대가야로 비정되고 있으나 사료 ②에 등장하는 반파(叛波)와 사료 ⑥의 반파(伴跛)를 동일하게 보면서 가락국[대가야]과는 별개의 국(國)으로 보는 견해(백승욱

15) 百濟遣前部木弼不麻甲背 迎勞物部連等於己汶 而引導入國 群臣各出衣裳斧鐵帛布 助加國物 積置朝廷 慰問慰勲 賞祿優節  
16) 百濟遣州利即次將軍 副物部連來 謝賜己汶之地 別貢五經博士漢高安茂 請代博士段楊爾 依請代之 戊寅 百濟遣灼莫古將軍日本斯那奴阿比多 副高麗使安定等 來朝結好

2007)도 있다.

최근에는 고고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반파가 운영한 봉화와 봉화로의 복원, 고총 고분의 존재와 제철유적 등을 문헌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반파는 진안 고원의 장계분지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계통의 정치체(곽장근 2018; 이도학 2019)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표 1. 己汶, 帶沙 기존의 위치 비정(곽장근 2018 참조)

| 연구자  | 己汶·帶沙 위치 비정          |                | 출 전                    |
|------|----------------------|----------------|------------------------|
|      | 기문                   | 대사             |                        |
| 今西龍  | 南原                   | 河東             | 今西龍(1922)              |
| 末松保和 | 섬진강                  | 河東             | 末松保和(1956)             |
| 金廷鶴  | 河東郡 일대               |                | 金廷鶴(1977)              |
| 丁仲煥  |                      |                | 丁仲煥(1978)              |
| 千寬宇  | 金陵郡, 開寧              | 達城郡多斯·河濱       | 千寬宇(1991)              |
| 全榮來  | 南原                   | 河東             | 全榮來(1985)              |
| 延敏洙  | 南原, 任實               | 河東             | 延敏洙(1988)              |
| 田中俊明 | 번암(상기문), 남원(하기문)     | 河東             | 田中俊明(1992)             |
| 金泰植  | 南原, 任實               | 河東             | 金泰植(1993)              |
| 李永植  | 南原                   | 河東             | 李永植(1995)              |
| 林永珍  | 南原                   |                | 林永珍(1997)              |
| 李根雨  | 남원                   | 하동             | 李根雨(1997)              |
| 郭長根  | 운봉고원                 | 전남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 郭長根(1999)<br>곽장근(2013) |
| 白承忠  | 남원                   | 하동             | 白承忠(2000)              |
| 金鉉球  | 김천시 개령               | 대구시 달성군        | 金鉉球(2000)              |
| 李東熙  | 남원                   | 하동             | 이동희(2004)              |
| 김병남  | 南原, 任實               | 하동             | 김병남(2006)              |
| 朴天秀  | 구례·곡성·순창·남원·임실       | 하동             | 朴天秀(2006)              |
| 백승옥  | 낙동강, 섬진강             | 하동             | 백승옥(2007)              |
| 李東熙  | 남원                   | 하동             | 이동희(2007)              |
| 김영심  | 남원, 임실               | 하동             | 김영심(2008)              |
| 박현숙  | 남원, 장수, 임실           | 하동             | 박현숙(2008)              |
| 정재윤  | 남원, 임실               | 하동             | 정재윤(2008)              |
| 朱甫暉  | 장수지역(상기문), 운봉고원(하기문) |                | 주보돈(2011)              |
| 金在弘  | 운봉고원(상기문), 장수군(하기문)  |                | 김재홍(2011)              |
| 이희준  | 운봉고원(기문)             |                | 이희준(2018)              |

#### 4. 고고자료와 문헌으로 본 상기문국

##### 1) 무덤자료 본 상기문국

전북 동부지역에서 조사된 가야고분의 입지는 대체적으로 하천이 흐르고 주변에 충적지가 발달된 지형으로, 고분이 자리하는 지역은 주변을 조망하기 좋은 산줄기의 정상부 또는 주능선의 등줄기를 따라 자리한다. 특히, 고총이 밀집 분포하는 금강수계권의 장수(동촌리)·장계(삼봉리)분지와 남강수계권의 운봉고원(월산리·두락리)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입지적인 특성은 백두대간의 동쪽에서 조사된 가야계 고총의 입지와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입지는 봉분의 규모가 훨씬 커 보이고, 고대한 봉분 자체가 산봉우리처럼 보여 최대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세기 2003).



그림 10.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사적 제542호)

남강 수계의 운봉고원은 광천이 흐르는 운봉분지와 풍천이 흐르는 아영분지로 구분되며, 풍천과 광천은 인월면 소재지에서 만나서 흘러 이어져 임천강으로 불리우다가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서 남강의 본류와 만나게 된다. 운봉분지와 아영분지에 자리한 가야 고분군 중 중대형의 봉토분[고총]이 확인되는 고분군의 입지는 분지의 중앙으로 뺀 지류의 끝자락이나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남강 상류권의 각각의 중심고분군은 국지적 영역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공간에서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가시성 확보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강동석 2019).

운봉고원 상기문국 지배층의 무덤은 봉토의 평면형태가 타원형이고, 주위에 호석은 시설되지 않았다. 봉토와 매장시설의 축조방법, 주구 등에서 마한의 분묘 전통이 남아있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 석곽묘가 대부분인데, 임리 고분군에서 횡구식 석곽묘가 조사된 바가 있으며 남원 두락리 2호분의 경우 횡혈식 석실이다. 봉토 내 매장시설의 배치는 단곽식이 대부분이며,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분을 제외하고 모두 단곽식이다. 32호분은 주석곽과 부곽이 '11'자 형태이나 부곽은 매장용이 아닌 부장품 매납이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가야고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순장 유형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sup>17)</sup>. 운봉고원의 중심고분군으로 알려진 월산리고분군 M1호분은 그간 M1-A호를 중심으로 B·C·D·E·F·G호가 배치된 다곽분으로 알려져 있었다(전영래 1983). 그러나, 봉토가 가장 크고 여러 기의 고분이 중복관계를 보이고 있어 M1-A호 1기만 배치된 것(곽장근 1999)으로 보거나 층위학적으로 M1호분 중 M1-A호를 가장 먼저 축조한 고분으로 보기도 한다(박광춘 2006). 이를 좀 더 검토해보면 그림 2)와 같이 M1~3호분 외에 적어도 1~2기의 봉토분이 연접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sup>18)</sup>. M1-G호분은 두락리 32호분과 같이 M1-F호가 딸린무덤[부곽] 일 가능성이 높으며, M1-E호분은 단곽식으로 볼 수 있다. 소형석곽인 M1-B·C·D는 후대에 매장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남강 상류지역인 함양과 산청 일원의 가야고분도 유사성을 보이는데, 매장시설은 수혈식이며 단곽식이 대부분이다.

17) 주곽과 함께 부곽 또는 순장곽이 축조되는 묘제는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영향을 받은 대가야 묘제로 분류(하승철 2019)하기도 한다.

18) M2호분과 M-G호분의 선후관계는 발굴보고서의 분포도를 참고하여 추정하였으나 단곽식에서 다곽식[11자형태]으로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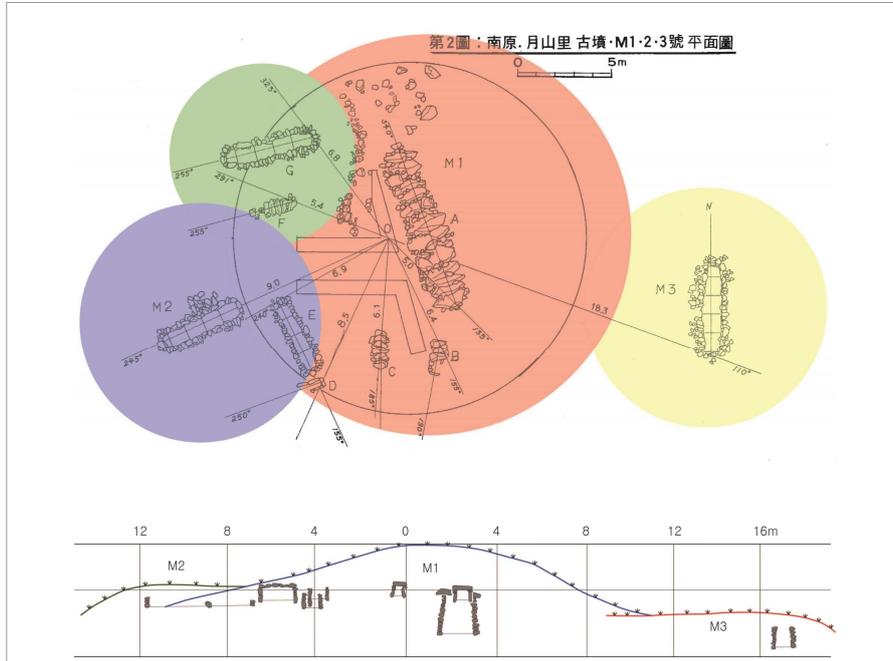


그림 11. 남원 월산리고분군 평·단면도(전영래 1983 수정)

운봉고원 가야고분군 중 중심고분으로 알려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는 40기의 고총이 자리한다. 고총의 규모는 직경 8~32m 내의이며, 20m 이상되는 대형분 14기가 자리한다. 또한, 지류의 정상부에는 직경 30m 이상되는 초대형의 고총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고총의 양상은 대가야의 중심고분군인 고령 지산동고분군 서쪽에서 최대 규모로 이를 조성한 세력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융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가야의 고총에서 최초로 나온 금동신발과 수대경이 출토된 두락리 32호분의 직경은 21m로 대형분에 해당된다.



그림 12.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32호분 출토(좌 : 수대경, 우 : 금동신발)

운봉고원 가야고분의 매장시설인 석곽의 규모를 통해 피장자 위상 또는 국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면적 5m<sup>2</sup>이상의 대형 석곽과 8m<sup>2</sup>이상의 초대형 석곽들은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과 월산리고분군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특히,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그 길이가 960cm로 고령 지산동 등 다른 지역의 가야 고총들보다 크다. 가야의 고총에서 매장주체부의 길이가 큰 것은 무덤의 주인공이 죽어서도 살아생전의 권위와 신분을 그대로 누릴 거라고 믿었던 계세사상(繼世思想)이 널리 유행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에 사후세계에도 현실세계와 똑같은 또 다른 삶이 이어진다고 믿었던 가야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녹아있다. 그리하여 봉토의 직경과 매장주체부의 크기는 가야 세력의 국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곽장근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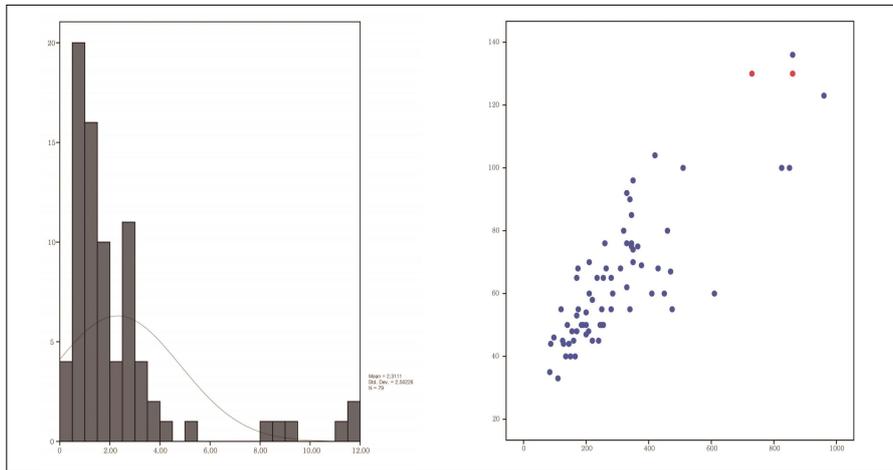


그림 13. 운봉고원 가야고분의 매장시설 규모(전상학 2019)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월산리·청계리고분군은 남강 상류인 운봉고원 일원에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상기문국 지배자의 무덤이다. 이 중 유곡리·두락리 32호분에서는 공주 무령왕릉 출토품과 흡사한 수대경(獸帶鏡)과 금동신발이 출토되었다. 금동신발을 비롯하여 수대경, 철제초두, 계수호는 가야의 영역에서 한 점씩만 나온 최고의 위세품이다. 중국 남조에서 만들어진 수대경은 무령왕릉 출토품보다 앞서는 것으로 가야와 중국 남조의 국제외교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해 주었다.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는 중국제 청자인 계수호(鷄首壺)가 출토되었는데, 백제왕의 주요 하사품으로 알려진 최상급 위세품(威勢品)의 하나로 종전에 공주 수촌리, 천안 용정리, 서산 부장리 등 백제의

영역에서만 나왔다. 신라의 천마총과 황남대총 출토품과 흡사한 철제초두(鐵製鏃斗)를 비롯하여 금제 귀걸이, 갑옷과 투구, 경갑, 기꽃이, 다양한 구슬류 등 가야의 위신재(威身財)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14.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철제초두와 계수호

이렇듯 운봉고원 상기문국 지배자의 무덤에서는 가야 고총에서 최초로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에서 수대경과 금동신발이 월산리에서는 계수호와 철제초두가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상기문국의 국제성과 함께 그 위상을 최고로 높였다. 최근 조사된 청계리 고분군은 호남지역 가야고분 중 규모가 가장 크며, 5세기 전반에 축조되었다. 유물은 중국자기, 왜계 유물인 나무빗[豎櫛], 여러 가야[금관가야,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의 토기류 등이 출토되어 국제적이고 역동적인 상기문국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무덤자료를 통해 상기문국과 백제와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두락리 2호분은 매장주체부가 횡혈식 석실분으로 남쪽 사면부 하단에 위치한다. 연도의 길이가 긴 것은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의 특징으로 보는데 36호분의 연도는 382cm로 기다란 형태이다. 연도의 위치와 길이를 제외하면 유구의 속성은 대체로 공주 송산리 3호분과 상통한다(곽장근 2018). 이러한 횡혈식 석실은 백제와의 관계 속에서 축조된 것(전상학 2019)으로 보고 있으며, 고총의 내부구조가 백제 묘제를 수용한 것은 기문국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었음을 말해준다. 운봉고원의 임리 1호분의 주석곽은 산줄기와 평행되게 남북으로 장축방향을 두었으며, 그 출입구가 남쪽에 마련된 횡구식이다. 주석곽의 내부구조와 유구의 장축방향이 백제 묘제와 관련성이 있다.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즉 가야의 영역에서 백제 묘제가 가장 일

찍 수용된 곳이 운봉고원으로 기문국은 백제의 선진문화와 선진문물이 가야 영역으로 전파되는 큰 대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곽장근 2018).

## 2) 운봉고원의 상기문국

전북의 동부지역은 백제, 신라, 가야라는 커다란 세력이 부딪히기도 하고 교류하기도 하면서 형성한 문화가 복합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곳이다(김낙중 2014). 이 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가야계 수혈식석곽묘는 대가야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다는 종래의 통설과는 달리 그 이전부터 이곳에 기반을 둔 세력집단이 주요제로 채택하여 발전시킨 묘제로 보았다(곽장근 1997). 1982년 88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발굴조사에서 남원 월산리고분군의 실체가 처음으로 드러났으며, 남원 두락리고분군·건지리고분군·행정리고분군·고죽동유적, 장수 삼고리고분군, 진안 황산리고분군 등 전북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백두대간의 서쪽지역에 가야계 정치체의 존재를 일부나마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운봉고원의 가야고분군은 두락리, 월산리·칭계리 고분군이 중심고분군으로 주변에 중·소형분이 분포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최근 남강 상류권 가야고분군의 분포밀도 분석에 의하면, 운봉·함양·산청 일원에 저밀도구간을 제외하고 각각 하나의 밀집권을 형성한다(그림 15). 이 권역들 내에 중심고분군에 해당하는 산청 중촌리·삼가 고분군, 산청 생초·백천리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월산리 고분군이 분포한다. 이러한 고분군 밀집분포권은 정치경제적·종교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지역정치체의 권역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중심고분군은 이러한 정치체의 대표하는 기념물로서 묘역을 중심으로 한 ‘의미화된’ 경관의 조성을 통해 정치권력을 확대·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강동석 2019).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경남 함양군과 산청군 일대에는 서로 긴밀한 교류관계를 바탕으로 동일한 문화권 및 생활권을 형성했던 가야 소국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고자료의 검토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간 운봉고원에서 발굴조사된 가야 고분의 봉토는 평면형태가 타원형이고, 주위에 호석은 시설되지 않았다. 가야계 고총 중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은 하나의 분포권을 이루는데, 남원 월산리·두락리를 중심으로 함양 상백리·백천리, 산청 중촌리·생초, 장수 삼봉리·동촌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곽장근 1999).

사료④에서 기문의 위치는 삼국시대 때 신라의 영향력이 서쪽으로 어디까지

미쳤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백제와 신라의 국경선을 알려주는 고고학 증거로 알려진 신라의 단각고배를 중심으로 신라토기는 금강 상류인 진안고원과 남강 상류인 운봉고원에서 출토되었다. 운봉고원에서는 단각고배보다 그 시기가 앞서는 신라계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지만, 진안고원의 금산군·진안군·무주군에서는 다양한 기종의 신라토기가 상당량 수습되었다.<sup>19)</sup> 그러나 진안고원의 장수군과 섬진강유역에서만 신라계 유적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았고, 유물도 나오지 않았다(곽장근 2018). 최근 무주 대차리고분군에서는 11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으며, 내부에서는 대부장경호, 단경호, 개, 고배, 발 등의 신라 및 재지계 토기와 철검, 철도자, 철촉 등의 철기가 출토되었으며, 대형석곽(6, 8호)에서 금동이식 4점이 출토되었다. 석곽묘의 구조 및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로 5세기 말~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하고 있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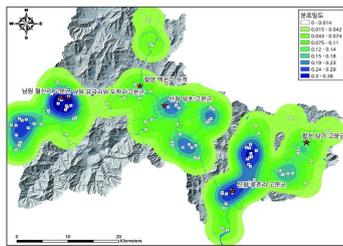


그림 15. 남강 상류권 가야고분군 분포밀도(강동석 2019)



그림 16. 무주 대차리고분군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8)

운봉고원에서 신라의 단각고배는 두락리 2호분(전북대학교 1987)·봉대 고분군(호남문화재연구원 2013)·북천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에서 출토되었다.

문헌자료 속의 기문은 표 2)와 같은 전제 조건을 갖추면서 고고자료를 통해 가야 정치체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한원의 기문하(基汶河)는 남강으로 보고자 한다. 기문은 백제·신라·반과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토지와 인민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어야 한다. 또한, 삼기문으로 3개의 소국(지역)이 나타나는데, 지리적으로 상류에 있으면서 유곡리와 두락리·월산리·임리·청계리 등의 고분군를 비롯한 160여기의 중대형 고총이 분포하는 운봉고원에 삼기문국이 자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19) 전북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북리마을에서 수습된 20여 점의 신라토기와 백제토기가 무풍초등학교와 구천초등학교 등 3개소에 보관되어 있다. 신라토기는 대각부에 지그재그로 투장이 뚫린 이단투창고배와 대부광구장경호, 파수부잔 등이 있는데, 고배류를 제외한 유물의 속성은 진안 황산리 출토품과 상통한다.

표 2. 고고자료와 문헌으로 본 기문[상기문국]의 위치

|                        | 섬진강           | 금 강 | 낙동강    | 남 강           | 비 고               |
|------------------------|---------------|-----|--------|---------------|-------------------|
| 사료① 우륵12곡<br>가야 지명[소국] | ○             | ○   | ○      | ○             |                   |
| 사료② 양직공도<br>백제 관련성     | ○             | ○   |        | ○             |                   |
| 사료③ 한원<br>지리적 검토[기문하]  | ○             |     |        | ○             |                   |
| 사료④ 신찬성씨록<br>삼기문, 신라   |               |     | ○      | ○             | 임나<br>[대가야 또는 백제] |
| 사료⑤ 속일본후기<br>삼기문, 백제   | ○             | ○   |        | ○             |                   |
| 사료⑥ 일본서기<br>백제, 신라, 반파 |               |     |        | ○             | 반파<br>[대가야 또는 장수] |
| 고고자료(고총)               |               | ○   |        | ○             |                   |
|                        | 남원, 임실,<br>순창 | 장수  | 김천(개령) | 운봉, 함양,<br>산청 |                   |

## 5. 맺음말

운봉고원은 한반도의 물줄기를 동서로 가르는 백두대간 동쪽의 고원지대로 남강과 섬진강이 시작되는 곳이다. 동쪽으로는 팔랑치를 넘어 경남 함양으로 이어지고, 서쪽으로 여원치로 내려오면 남원으로 치재를 넘으면 임실과 장수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동서 문화교류의 관문이었다.

이글에서는 문헌 속 기문의 지리적·공간적 범위와 백제와 신라, 반파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고, 고고자료와 비교·검토를 통해 기문은 남강 상류에 자리했던 가야 소국으로 보았다. 남강 상류의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경남 함양군과 산청군 일대에는 서로 긴밀한 교류관계를 바탕으로 동일한 문화권 및 생활권을 형성했던 가야 소국들이 있었다. 문헌 속 기문은 상·중·하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리적으로 상류에 있으면서 유곡리와 두락리·월산리·임리·청계리 등의 고분군을 비롯한 160여기의 중대형 고총이 분포하는 운봉고원을 상기문국으로 비정하였다.

‘신선의 땅’이라 불리우는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상기문국은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처음으로 등장해 6세기 중엽 경까지 가야계 소국으로 존재하였다. 운봉고원의 상기문국은 우륵의 가야금 12곡과 양직공도에도 그 이름이 등장한다. 상기문국이 자리한 운봉고원은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 마한 그리고

여러 가야세력이 부딪치기도 하고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으로 ‘동북아 물류교류 허브’로 불리우는 지역이다(곽장근 2018).

상기문국 지배자의 무덤인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과 월산리고분군은 대가야 지배자 무덤군으로 알려진 지산동고분군 서쪽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가야 고층에서는 처음으로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에서 수대경과 금동신발이 월산리에서 계수호와 철제초두가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기문국의 국제성과 함께 그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 지산동 서쪽에서 가야계 고층은 대가야양식 토기가 주종을 이루는 단계에 접어들면 가야계 고층이 자취를 감추든지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이희준 2008). 고층의 존재여부는 그곳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세력 집단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동시에 고층의 규모와 기수는 조영집단의 존속기간이나 피장자의 사회적인 위상을 반영하는 요소로 해석된다. 운봉고원의 남원 두락리고분군은 봉토의 규모와 매장주체부가 축소되지 않고 그 이전 단계의 발전속도를 멈추지 않고 더욱 커졌으며, 40여 기 이상의 가야계 고층이 한 곳에 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기문국의 존속기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고분자료 이외에도 관방(산성·봉수)유적과 제철유적 등은 상기문국의 실체와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운봉고원에는 백두대간의 준령을 따라 7개소의 산성과 5개소의 봉수가 분포되어 있다. 이 중 아막성은 전북 동부지역의 산성 중 최대 규모로 내부에 가야, 백제, 신라토기가 모두 확인되고 있다. 최근 전북 동부지역에서는 100여 개소의 제철(동)유적이 확인되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의 운봉고원과 서쪽의 진안고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운봉고원에서 30여 개소와 진안고원에서 7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어 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유영춘 2015). 고대국가의 성립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발달된 철기문화인데, 실제 국가형성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철기문화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김권일 2015). 대가야는 야로광산의 개발이 국가단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20)</sup>. 향후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상기문국의 성립·발전 등과의 관련성을 밝혀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접수일: 2020. 10. 29. / 심사개시일: 2020. 11. 17. / 게재확정일: 2020. 11. 25.

20) 아직까지 대가야지역에서 제철유적은 조사되지 않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參考文獻

- 강동석, 2019, 「남강 상류 가야고분군의 입지와 분포패턴」,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학술심포지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郭長根, 1999, 『湖南 東部地域 石槨墓 研究』, 書景文化社.
- \_\_\_\_\_, 2003, 「錦江 上流地域으로 百濟의 進出過程 研究」, 『湖南考古學報』 18권.
- \_\_\_\_\_, 2007, 「蟾津江流域으로 百濟의 進出過程 研究」, 『湖南考古學報』 26권.
- 곽장근, 2009, 「금강 상류지역 교통로의 조직망과 재편과정」, 『한국상고사학보』 66호.
- \_\_\_\_\_, 2010, 「전북 동부지역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 『백제문화』 43집.
- \_\_\_\_\_, 2011,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권.
- \_\_\_\_\_, 2013, 「전남지역 마한 소국과 백제: 임나사현과 기문의 위치」, 『백제학보』 9권.
- \_\_\_\_\_, 2015, 「운봉고원의 제철유적과 그 역동성」, 『백제문화』 52집.
- \_\_\_\_\_, 2018a, 「전북의 가야문화유산 현황과 과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 조사 및 정비와 국가균형발전』 전북연구원.
- \_\_\_\_\_, 2018b, 「백제 응진기 영토 개척과 지방지배2」, 『백제 응진기 영역과 지방지배』 제13회 쟁점백제사 학술회의, 한성백제박물관.
-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2007,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김권일, 2015, 「대가야 철의 생산과 유통 추론」, 『대가야 문물의 생산과 유통』 고령군 대가야박물관·(재)영남문화재연구원, pp. 95-144.
- 김낙중, 2018, 「남원지역 고분군의 성격과 보존 및 활용 방안」, 『문화재』 51권 2호.
- 김세기, 2003, 『고분 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 김영심, 2008, 「백제의 지방지배 방식과 섬진강유역」,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 김재홍, 2011, 「전북동부지역을 둘러싼 백제·가야·신라의 지역지배」,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한국상고사학회.
- 김재홍, 2017, 「위세품으로 본 전북가야의 위상과 그 성격」,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 金泰植, 1997, 『百濟의 加耶地域 關係史: 交渉과 征服』, 『百濟의 中央과 地方』 5집,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김태식,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도서출판 푸른역사.
- 박순발, 2012,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 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 무사』 국립전주박물관·전북문화재단연구원.
- 朴升圭, 2003, 『大加耶土器의 擴散과 관계망』, 『韓國考古學報』 49집.
- 박중환, 2018, 『양직공도 방소국을 통해 본 백제의 대외관』, 『중국 양직공도 마한제국』 마한연구원.
- 朴天秀, 1999, 『考古學 資料를 통해 본 大加耶』,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 韓國考古學會.
- 박천수, 2007, 『5-6세기 호남동부지역을 둘러싼 大伽耶와 百濟』, 『교류와 갈등』 湖南考古學會.
- 朴天秀, 2009, 『호남 동부지역을 둘러싼 大伽耶와 百濟 -任那四縣과 己汶, 帶沙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65호.
- 박현숙, 2008, 『백제의 섬진강유역 영역화와 가야와의 관계』,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 方東仁, 1997, 『교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백승욱, 2007, 『己汶·帶沙의 위치비정과 6세기 전반대 가라국과 백제』,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白承忠, 2000, 『6세기 전반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百濟研究』 31집.
- 백제사연구회, 2007, 『백제와 금강』, 서경문화사.
- 유영춘 외, 2012, 『남원 운봉고원 제철유적』,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성과』 호남고고학회.
- 유영춘, 2015, 『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배경』, 『호남고고학보』 51집.
- 유영춘, 2018, 『철기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 59집.
- 柳哲, 1996, 『全北地方 墓制에 대한 小考』, 『湖南考古學報』 3집, 湖南考古學會.
- 이군, 2017, 『鷄首執壺에 관련된 문제 및 한국의 고대 가야 고분에서 발견된 의의』,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 이동희, 2008, 『섬진강유역의 고분』,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 이성주, 2007,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성격』,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pp. 147-189.

- 李永植, 1995, 「百濟의 加耶進出過程」, 『韓國古代史論叢』 7집.
- 이용현, 2020, 「己汶·帶沙의 위치와 그 위상」, 『전북사학』 59호.
- 이형기, 2020, 「대가야의 공간적 범위와 우륵12곡」, 『대가야 학술총서』 13권, 고령군 대가야박물관·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李熙濬, 1995, 「토기로 본 大伽耶의 圈域과 그 변천」, 『加耶史研究』 慶尙北道.
- 이희준, 2008, 「대가야 토기 양식 확산 재론」, 『영남학』 13호.
- 이희준, 2017, 『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 전상학, 2007, 「全北 東部地域 竪穴式 石槨墓의 構造 研究」, 『湖南考古學報』 25권, 湖南考古學會.
- \_\_\_\_\_, 2015, 「섬진강유역 고분의 성격」, 『섬진강유역의 고고학』 제23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 \_\_\_\_\_, 2018,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59권, 호남고고학회.
- \_\_\_\_\_, 2019a, 「호남 동부지역 가야고분의 유형」, 『마한·백제 그리고 가야』 제27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 \_\_\_\_\_, 2019b,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가야고분군V』,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6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全榮來, 1974, 「任實 金城里 石槨墓群」, 『全北遺蹟調查報告』 3집, 全羅北道博物館.
- 全榮來, 1983, 『南原, 月山里古墳群發掘調查報告』,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 全榮來, 1985,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論叢』 정음문화사.
- 정재운, 2008,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에 대한 고찰」,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 조명일, 2004, 「전북 동부지역 봉수의 분포양상」,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호남고고학회.
- 조명일, 2012, 「금강 상류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양상과 성격」, 『湖南考古學報』 41호.
- 조명일, 2018, 「全北 東部地域 烽燧에 관한 一考察」, 『湖南考古學報』 59호.
- 주보돈, 2006, 「대가야의 성장 배경」, 『대가야 학술총서』 4권,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주보돈, 2011, 「5-6세기 금강상류지역의 정치세력과 그 향방」, 『백제와 가야 그

- 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한국상고사학회.
- 주보돈, 2017, 『가야사 새로 읽기』, 주류성.
- 최완규, 2017, 「전북가야와 백제의 역동적 교류」,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 최인선, 2008, 「섬진강 유역의 백제산성」,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 하승철, 2014, 「남원지역 가야 고분의 구조와 변천」, 『가야와 백제 그 조우의 땅 ‘남원’』 남원시·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_\_\_\_\_, 2019, 「남강 상류 가야고분군의 축조 세력」,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학술심포지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洪潛植, 2006, 「대가야의 문화교류」,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 홍보식, 2008, 「6세기 전반 가야의 교역 네트워크」, 『6세기대 가야와 주변제국』 김해시.
- 今西龍, 1922, 「己汶伴跋考」,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 山本孝文, 2001, 「古墳資料로 본 新羅勢力의 湖西地方 進出」, 『湖西考古學』 4-5집.
- 田中俊明, 1990, 「于勒十二曲と大加耶聯盟」, 『東洋史學研究』 48권 4호.
- 田中俊明, 1993, 「大加耶連盟の興亡」, 『加耶史論』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Abstract>

## **SangKimun Country from Archaeology and Literature**

Jeon, Sanghak\*

The geographical and spatial scope of the Kimun in the literature and its relationship with Baekje, Silla, and Banpa were identified, and through the review of the archaeological data, the Kimun was regarded as a small Gaya kingdom located upstream of the Nam River. Around the Unbong Plateau in the upper reaches of the Nam River, there were small Gaya countries that formed the same cultural and living areas based on close exchanges between Hamyang and Sancheong counties i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inscriptions in the literature consist of upper, middle, and lower Kimun, and Unbong Plateau, which is located in the upper reaches of the country and distributed 160 medium and large ancient tombs including Yugok-ri, Durak-ri, Wolsan-ri, Imri, and Cheonggye-ri, is located in the SangKimun country.

The local-based culture of the Unbong Plateau, called the "Land of God," also features 12 gayageum songs by Ureuk and Yangjikgongdo. Unbong Plateau, where the above civilization is located, is an area where Baekje, Silla, Mahan, and other Gaya forces clashed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resulting in a combination of diverse cultures.

Key Words : Gaya, Kimun, SangKimun country, Baekje, Silla, Banpa, Unbong Plateau, Nam River, Seomjin River, Ancient tombs

---

\* Senior Researcher, Jeonju Cultural Heritage Institute

